

영성 생활은 순례다

이나시오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스스로를 “순례자”라 칭한다. 순례자는 방랑자나 유랑자 또는 목적지 없이 돌아다니는 여행자가 아니다. 순례자에게는 정해진 목적지가 있다.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길에는 수많은 다양한 길이 있을 수 있다. 이나시오에게는 영성 생활이야말로 진정한 순례였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행동 양식”이었다.

이나시오는 말년에 동료 예수회원인 루이스 곤사우베스 다 카마라에게 자신의 생애를 간략하게 구술하여 기록으로 남겼다. 그가 마지못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카마라를 비롯한 예수회의 가까운 동료들의 간청 때문이었다. 이나시오는 자신의 업적을 자랑스레 떠벌리는 데에는 관심이 없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이나시오의 벗들은 그의 영적 사상이 그의 삶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직접 말하는 그의 경험들을 기록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 기록은 우리가 이나시오와 그의 영성을 이해하는 데 말할 수 없이 귀중한 도움이 되었다.

이나시오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동안 줄곧 자신을 “순례자”라고 부른다. 한동안 이것은 문자 그대로 사실이기도 했다. 그

가 처음 자신을 하느님에게 봉헌하고자 했을 때 그는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떠났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성지 순례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나시오 또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나시오는 넓은 의미에서 자신의 삶 전체를 순례로 여겼다. 그의 여정은 한동안 정처 없는 것처럼 보였다. 수년간 그가 추구했던 목표는 불분명해 보였다. 유럽의 이곳저곳을 걸어서 다녔고, 여러 다른 방법으로 영성 생활에 접근해 보았다. 이나시오와 그의 초기 동료들이 예수회의 사명을 무엇으로 삼아야 할지 결정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다.

영적 순례를 떠난다는 생각은 오늘날과 같이 영성을 “추구하는” 시대에는 일반적인 것이 되었지만, 이나시오가 살던 시대에는 그리 흔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영성 생활이란 정주하는 것이었다. 영성 생활은 정해진 한 곳, 수도원이나 수녀원에서, 작은 도시나 마을에서 영위되었으며, 성무일도(시간전례)를 노래로 바치거나 신심 행위를 하고 전례시기별 신심 기도를 하면서 이루어졌다. 또 한편으로, 프란치스코회 수도자의 경우에는 복음적 청빈을 살아간다거나, 도미니코회 수도자는 설교를 하고 학업에 정진하는 것과 같은 특수한 사명에 국한되었다. 그런데 이나시오는 이러한 틀을 깨트렸다. 그에게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 그가 영신수련의 「원리와 기초」에서 밝혔듯이, “하느님

의 생명이 자신 안에서 날로 더욱 자라게 하고 완성시키는 방향으로 자신을 더욱더 인도하는 것을 바라고 선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은 험난했다. 이냐시오는 우리가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마태 8,20)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정체성을 가지기를 바랐다.

이냐시오 영성이란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순례에서 지녀야 할 기본적 자세를 모아 놓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고정된 사건이 아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은 변할 것이고, 새로운 기회는 활짝 열려 있다. 하느님은 새로운 방향을 가리켜 주실 것이니, 우리는 늘 깨어 있으면서 매일 주어지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 이냐시오 영성에서 제시하는 방법들은 우리로 하여금 늘 성령의 움직임에 주목하게 한다. 매일의 양심성찰이 특히 중요한데, 이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날 일어난 일들을 돌아봄으로써 하느님의 현존을 발견하는 방법이다. 이냐시오 영성은 기도를 폭넓게 이해하도록 해 준다. 기도는 지속적인 상호적 나눔이며 친밀한 통교이다. 한편 이냐시오 영성은 상상력을 사용하는 기도를 통해 복음 속에 살아 계신 그리스도와 접촉하는 기도 방법도 알려 준다.

순례는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 이냐시오는 신심 생활을 풍요롭게 했음에도 우리에게 다양한 신심 행위를 제시하지 않는

다. 또한 우리에게 설교를 하지도 않고, 복음서에서 도덕적 교훈을 끌어내지도 않는다. 그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인물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따르라고 요청한다. 이냐시오가 생각한 자신의 예루살렘 순례의 목적은 “온유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고 앉아 계셨으며 행동하셨던 그 자리에 입 맞추는 것”이었다. 이냐시오는 우리도 순례하는 동안 그와 같은 애정 어린 경외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한다. 우리는 기도를 준비하며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도 중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순례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이끄심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순례자는 “길” 위의 사람이다. 사도행전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길 위의 사람들”이라 말한다. 그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았다. 이는 그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양식이었고, 다른 이들은 그들의 이러한 독특한 삶의 양식에 주목했다. 이냐시오는 예수회의 삶의 양식을 기술한 『예수회 회헌』을 저술하면서 이 “길”에 관한 개념을 새롭게 다듬었다. 이냐시오의 주된 관심사는 예수회원들이 사도직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도직을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예수회원의 생활이 그동안 교회 내의 수도회에서 내려오던 규칙에 의해 제한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 대신에 이냐시오는 “행동 양식”의 특색을 기술했는데, 이는 예수회원들이 양성 받는 동안 내면화해야 하는 태도, 접근 방식, 관습의 집합체였다. 이 행동 양식이 순례자로 살

아가는 예수회원의 여정에서 그들이 내려야 하는 결정에 신뢰할 만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나시오적 행동 양식은 유연성과 적응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이는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현존하시며, 세상을 치유하시고 구속하시는 당신의 사업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이해에 기초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특히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다. 이나시오적 행동 양식은 하느님의 현존과 그분의 이끄심을 식별하기 위하여 우리의 경험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습관이기도 하다. 이나시오식 기도 방법 중의 하나는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따르기 위하여 상상력을 사용하는 기도를 통해 그분의 생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나시오적 행동 양식을 구성하는 몇몇 특성들이라 할 수 있다. 행동 양식은 이나시오 영성의 핵심 개념이다. 그것은 영성 생활을 향한 접근 방식이지, 조직적인 영성 제도가 아니다. 이나시오 영성이 수많은 현대인들에게 매우 적합한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이러한 행동 양식 때문이다.

이나시오적 행동 양식은 순례자로 살아 나가는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길이다. 이 행동 양식을 갖추게 된다면 우리는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된다.

부르시는 하느님, 응답하는 우리

이나시오는 「왕의 부르심」 관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따로따로 불러 당신을 따르라고 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하느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시며,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한다. 이러한 이나시오 영성의 역동성에 대해 성찰해 보자.

이나시오 영성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하느님은 나에게 무엇을 더 원하시는가? 이나시오는 하느님과 그분의 창조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지니고 있었고, 많은 기도 방법, 식별 규칙, 영적 훈련, 사도적 봉사에 대한 접근 방식 등을 개발했다. 그러나 이나시오 영성을 구성하는 이 모든 요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중요한 질문, 즉 “하느님은 지금 무엇을 더 원하시는가?”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지를 도와주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하느님은 부르시고, 우리는 응답한다. 이것이 영성 생활의 근본적인 역동이다. 영신수련의 맨 마지막에 있는 「하느님 사랑에 대한 관상」에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무한한 사랑과 선물을 “마치 태양에서 빛이 나오듯이”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고 한다. 이것은 그저 포괄적인 비전이 아니다. 하느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인격적으로 활동하신다. 이나시오는 영신수련의 목적은 “하느님의 빛과 사랑이 우리 삶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결정과